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이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순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할 것이다. 욕심때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성서에서처럼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곧 사망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맞는 말이다. 모든 죄는 과한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사람까지 죽이는 형국을 맞게 된다. 이는 결국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사망을 낳게 되는 지름길인 것이다.

때문에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욕심을 효과적으로 잘 다스려야 한다. 헛되고 과한 욕심은 버리고 적절한 그리고 이를 수 있는 욕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도 자신의 욕심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남의 인권을 해치는 등 희생을 바탕으로

로 해서는 안 된다.

지구상에서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소유할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상식적으로는 누구나 평균수명이 80세 정도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만은 마치 예외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다. 그런 생각들이 온갖 욕심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평균수명이 이미 지난 사람들까지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온갖 추태를 부리는 것이 아닐까. 물론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과정은 생각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한 결과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수 많은 악행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

이다.

막대한 선거철에 몰입한 것 같다. 정체불명의 문자들을 받아보는 것 자체가 그를 증명하고 있다. 내년 6월 13일이 지방선거일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수많은 출마예정자들이 뛰고 있다. 이미 프랑카도도 난무중이다.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서. 하지만 출마자들 중의 대부분은 낙선할 것이다. 낙선과 동시에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참으로 딱할 일이다.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잘 검증하고 나서 출마하길 바란다. 헛된 욕심만 앞세우지 말고 몇 년 전에 한 행정을 만난 일이 있다. 참으로 순수해 보였다. F1대회 사무총장직 수임여부도 고민스러울 때였다. 그만큼 F1대회가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 전남도민들의 골치덩어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었다. 결국 사무총장이 되어 원만하게 해결했다. 그 후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 사람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당무총장인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한 이계호 국회의원이다. 이 의원은 여수·목포 부시장을 거쳐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까지 지냈다. 전남에서 태어나 전남에서 공직생활을 해온 전라남도의 토박이다.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의원의 인간성이 착하다고들 한다. 실제로 만나보면 인상이 선하다. 탄탄한 막걸리 타입이기도 하다. 서민이든 장애인이든 누구든지 만나주면서 소탈한 성품을 그대로 나타낸다. 그런 서민적인 선량함이 사람들을 다가가게 한 것 같다. 정치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자고로 정치는 수기치 인이라 했다. 즉 자신을 닦은 후 남을 돕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치가는 먼저 천지자연의 이치에 조화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스려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타인의 어려움, 부조화 등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만큼 정치란 어려운 것이다. 진정한 정치를 하려면 말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점을 잘 감안하여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社 說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해야

국민 10명 중 9명이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해졌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컵보증금제) 도입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9%(찬성 71.4%·수용 18.5%)가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1회용컵에 일정금액을 부과하고 반납시 환불해줘 반환을 촉진하는 제도다. 그러나 낮은 회수율, 미반환 보증금 관리 투명성 부족, 소비자 편익침해 등 비판 여론이 일면서 2008년 폐지됐다.

이번 인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1회용컵 사용 증가 추세와 관련해 응답자의 78.8%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은 3.7%에 그쳤다.

컵보증금제 도입 때 예상되는 효과로는 '1회용컵 사용 감소'(45.5%), '자원 재활용'(41.5%),

'길거리 투기 방지'(12.2%) 등을 꼽았다.

응답자 가운데 61.8%는 "컵보증금제가 시행되면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율러 69.2%는 구매할 1회용컵을 반납하겠다고 밝혀, 컵보증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길거리 투기 방지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응답자의 10%는 '제품가격 상승 우려', '낮은 회수·재활용률로 인한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컵보증금제 도입에 반대했다.

커피 산업의 성장, 소비형태의 변화 등으로 1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1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 고

박 병 주 담양소방서장



주택화재 예방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 지키자

최근 전남도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겨울철 주택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를 보면 전체 4만 3413건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06명입니다. 그 중 주택화재는 5750건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하고 단독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32명으로 전체 사망자중 43.1%의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에는 가구, 침구류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실내 장식물이 많고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성 가스가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있으며, 일반 개인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에 발생해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식하지 못해 대피지연으로 다수의 사

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이면도로에 무분별한 주차와 도로 폭의 협소로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양소방서는 그동안 주택화재를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유관기관과 주택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MOU 체결해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및 다문화가족 등 화재취약가구에 소화기, 감지기 등을 보급했으며, 농촌지역 등 소외지역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에 인접한 마을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해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취약주택 소방안전점검 및 순찰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방서에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개개인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화재예방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화재예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가정에서 안전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누구나 소중할 나의 가족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쉽고 간단하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가볍지 않은 화재예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째 사용하지 않는 전열 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도록 하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몸 전체를 잡고 뽑습니다.

둘째 요즘 간편하고 효과가 좋은 온열매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열선이 끊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접어서 보관하거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석유난로는 불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이동하지 않

으며, 전기난로 및 가스기구 등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고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석유난로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난로를 절대로 옮기지 말고 소화기나 담요 등을 덮어 질식소화해야 합니다. 가스스토브는 가스공급을 차단해 소화하고, 전기스토브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스위치를 끄거나 플러그를 뽑아 전류를 차단하고 소화하면 됩니다.

넷째 화목보일러나 아궁이 주위에는 나무부스러기와 같이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을 방지하지 말고 빨감을 태우는 동안에는 잠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아궁이는 나무를 태우고 난 재에 불씨가 남지 않도록 물을 뿌리거나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이나 주방 등 각 실에 천정에 설치해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해 경적을 울려 주변 사람이 빨리 인지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작동원리가 단순해 일반인들의 접근성에서도 매우 좋은 소방기기입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평소 사용법을 익혀두고 초기화재시 사용한다면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안전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누구보다 소중한 나의 가족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祭祀 蒸 嘗

祭祀 蒸 嘗

▷ 뜻: 제사(祭祀)하되 겨울 제사(祭祀)는 증(蒸)이라 하고 가을 제사(祭祀)는 상(嘗)이라 함.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료국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건강검진 종료하여, 이미 이미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검진, 알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건강검진 종료하여, 이미 이미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